

사설

미세먼지 대책, 협력과 조율 병행돼야

급박하게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러 온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한중간 협력을 이야기 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국제적이지 국가적 사안이 되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환경부가 2013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예보제'를 전면 시행하자, 언론보도로 자주 등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지난 10여 년간 개선 내지 정체 경향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위험도는 전혀 다르다. 더욱이 국제수준과 비교하면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4년의 경우 LA의 1.5배, 파리와 런던보다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OECD가 나서서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50년 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과 경제피해가 회원국들 중에 가장 클 것'이라 경고할 정도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작년 5월에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가 노후 석탄화력발전

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응급 대책이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의 주요 목표로는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달성하고, 2026년까지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엔 국외 영향이 큰 경우도 있고,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국제적·외교적 협력이 필요하고, 국내의 산업적·경제적, 심지어 생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융통성과 결단력도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40여 건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이 효과적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원 또한 병행돼야 한다.

이제 중국 측이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조기 출범에 동의하는 자세를 보인 것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공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개선이 단기간에 어렵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경보 체계를 개선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석탑추추

단칼에 풀리는 문제는 없다

날은 부쩍 따뜻해졌지만 미세먼지로 숨쉬는 것조차 신중스런 한 주였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낀 채 종종걸음으로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수년째 가지각색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더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 여러 요인들이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된다. 본지 취재부 기자들은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눈을 떼지 못한다. 뒤달하는 데스크의 등쌀에, 어떻게든 기삿거리 하나라도 물어오려고 볼멘소리를 하며 뛰어다닌다. 킬(kill) 당해 반절 이상 버려지는 아이템 중 몇 개라도 건지면 다행이다. 그렇게 겨우 머리를 짜내 나온 것이 지금까지 보도면에서 낸 문과대

공간문제, 수강신청 혼란, 의과대 거주문제 기사들이었다. 예전부터 제기됐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차가 쉬이 좁혀지지 않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매사 알레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자르듯 처리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학은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많은 주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여러 입장 차를 공정하게 보여주고,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학보사의 역할이 아닐까한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매주 발전된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강빈 취재부장 shining@

석탑만평

주재민 전문기자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부장	장강빈	FAX	02-928-0879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사회부장	김민준	메일 press@kunews.ac.kr
		학술·문화부장	류승현	핸드폰 010-3363-1947
발행인	염재호	편집국	02-3290-1683	페이스북 /kunews1947
편집인 겸 주간	허태균		02-923-4408	엘로아이디 @고대신문
인쇄인	김교준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편집국장	이민준	총무국	02-3290-1682	홍보관 2층

푸틴의 페테르부르크 시대

시론



김진규
본교 교수·
노어노문학자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대선에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푸틴이 압승을 거두며 4기 집권에 성공하였다. 투표율 70%와 지지율 7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의 투표참여에 큰 공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이런 현 정부의 노력 이외에도 두 가지 요소가 최종 집계결과 투표율 67%에 지지율 77% 정도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는 3월 18일이라는 선거일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징성을 띤다는 점이다. 2014년 3월 18일은 크림공화국의 러시아로의 합병안이 국민투표로 가결(2014년 3월 16일에 투표율 83%와 찬성률 97%)되고 합병 조약에 서명한 날이다. 역사적으로 키예프 루시 문명(862년 류리코프 왕조)에서 출발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가 각각 독자적인 민족국가로 발전하긴 했지만, 소비에트 연방 시기 하나의 국가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우크라이나나 탈러시아, 친EU 정책을 반대하는 대다수 크림공화국 러시아인들의 이러한 선택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본다.

게다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이외의 공화국들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과 불이익도 러시아에

게는 항상 불편한 문제였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크림은 우리 땅!'이라는 구호가 돋보이는 3월 18일에 치러진 대선은 러시아의 애국적 민족주의 정서를 극대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선거 직전에 일어난 우발적인 전직 이종스파이 가족의 피살사건과 이에 대처한 영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의 과도한 대응이 푸틴을 중심으로 한 표의 결집을 불러온 예기치 않은 숨은 공신이 되었다는 점이다. 블세비키 혁명부터 소련시대 냉전시기를 거쳐서 21세기가 되어서도 여전히 서구사회에 존재하는 러시아에 대한 '악마적 타자화' 시각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대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현 정부를 딱히 지지하지도 않고, 푸틴을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에 푸틴 연임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다. 강한 나라 러시아를 지켜내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푸틴 체제는 중간에 푸틴-메드베데프라는 '탄뎀(tandem)체제(2008-2018)'를 거쳐서 이제 다시 푸틴 1인 중심의 보다 강력한 권력집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노브고로드-키예프-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로의 권력의 무게중심 이동과정은 여전히 페테르부르크에서 오래 지속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공금한 점은 2인자 메드베데프의 운명인데 2인승 자전거에서 내리게 될지 좀 더 함께 페달을 밟게 될

지는 푸틴 대통령 4기 임기의 공식 출발과 더불어 판명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에서 100년 넘게 이어져온 러시아에 대한 '불량국가(rogue state)' 만들기과 같은 '루소포비아(러시아 혐오증)'에 우리가 굳이 동참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러시아는 점차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이웃해서 살아야 하는 가장 우호적일 수 있는 주변 4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도덕적인 접근이라는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극동 연해주 지역개발과 에너지 협력과 유라시아 대륙 물류시장의 개척과 북극항로 시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큰 전략적 목표가 분명한 한, 우리나라는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접목시켜야 할 과제를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 러시아 내부의 민주화의 진전과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개방과 소통의 과제는 러시아인들의 몫이다.

마침 이번 대선에 '루스키 미르' 재단이 설립한 본교의 러시아센터 대표 자격으로 외국인 공명선거 감시 참관단으로 초청받았다. 하지만 개강 초 학기 중이라 참여하지 못했는데, 러시아가 보여주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중국이 보여주는 것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주권민주주의'이든, '러시아식 민주주의'이든, '푸틴을 위한, 푸틴에 의한, 푸틴 방식의 민주주의'이든 상관없이 이미 중국보다는 30년 정도 앞서서 차근차근 정착시켜온 '러시아식 다당제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수레바퀴

어제를 기억하기에 오늘이 행복하다

4월 1일 만우절이 다가오자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 교복을 보면 10대의 생활이 그리운 듯 생각난다. 특히나 요즘같이 꽃이 피는 시기에 더 그렇다. 중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교복을 입던 시절을 떠올려본다. 그때의 나는 현재의 나와 같았나? 시간이란 것은 참 길지만 빠르게 흘러간다. 이 사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행동을 한다. 친구와 밥도 먹고, 과제도 하고, 일도 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대부분을 까먹고 지낸다. 수필가 최영욱은 무의식 속 사라진 수많은 기억을 서랍 속에서 잊힌 채 잠자는 유행 지난 옷가지라 표현했다. 까먹는 기억은 의미가 없어져 정리되는 옷들 같다는 것이다. 정리되는 기억들은

생략된 현재의 나를 보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달라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다. 시간이 지난 후 뒤를 돌아보며 추억에 젖을 때가 있다. 기억나지 않는 틈 사이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땐 좋았지', '그땐 왜 그랬을까' 등 다양한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내 인생의 모든 기억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며 나만 가질 수 있는 행복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이를 잃어가는 삶은 내가 조금씩 비어가는 느낌 한가득이다. 대학생은 100여년의 인생 중 20여년 밖에 살지 않았다. 짧은 시간 동안 벌써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한다. 한해마다 달라지는 나를 보며 색다른 행복하다. 추억이 쌓이는 것은 길고 짧은 없이 순간순간 쌓이는 것이다. 추

억을 쌓지 못한 채 이 시간을 흘려보내 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모든 기억을 기억하지 못해도 추억조차 제대로 쌓아가지 못한 채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슬픔을 품고 있을 뿐이다. "기억은 퇴적층과도 같아서, 잊어버려도 거기에 있어." 영화 <당신과 함께 한 순간들>에서 테스(지나 데이비스)가 한 말처럼 기억은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순간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 홀로 만들기 어려운 인생이란 그림은 모두가 나와 함께 맞춰가고 있다. 이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느껴지며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류승현 학술 문화부장 ryus@

종단횡단

영강, 영문을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너는 알아들었나?" "저 단어가 무슨 뜻이야? 얼른 사전 찾아보자."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으며 친구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졸업 필수요건에 영어강의의 수강이 포함돼 있다 보니 억지로 영어강의를 듣는 친구다. 친구는 수업이 끝나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하곤 한다. 분명 세계적인 유명하다는 교수가 진행하는 훌륭한 수업이라 들었는데, 결국 자신한테 남은 수업 내용은 얼마 없다는 것이다. 2018년 1학기 기준, 우리 과에 개설된 전공 수업 중 영어강의 비중은 36.7%다. 더불어 3개 이상 영어강의 이수율 졸업 요건에 추가해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

만 주위엔 수업 내용조차 제대로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다. 수업시간에 주어진 과제가 어떤 과제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과제 제출에 애를 먹는 친구도 있었다. 학생들 수준에 비해 강의 수준이 너무 높아 학생들이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업이 있는가 하면, 교수의 발음이 어색한 탓에 무슨 말인지조차 못 알아듣는 수업도 있다. 어떤 교수는 "자신의 발음이 어색하니 감안해 들어주길 바란다"고 미리 말하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다른 과의 경우 영어강의인 데도 한국말로 수업을 진행하고, 교환 학생에게 수강 정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은 교수의 말을 경청하며 필기를 하기보다는 블

랙보드에 올라온 ppt를 보고 공부한다. 교환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한국인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강의는 분명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엉터리로 진행되는 영어강의는 있으나만하다. 이대로라면 학생들은 수업 내용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교환학생들은 수업조차 들을 수 없다. 교수들은 언어적 한계로 학문의 깊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곤란을 겪어야 한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영어강의에서 첫 번째는 '영어'가 아니라 '강의'인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전현준 기자 perfect@